

06 2027학년도 수시 원서

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

불안이 성적을 깎는 자리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하지 말아야 할 것	3
03 대신 하실 수 있는 것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제도가 정해 놓은 것** — 자소서 대필·사교육 기재·면접·충원 전화·정시 지원 제한
- ◆ 자주 보는 **하지 말아야 할 다섯** (비교·결과 묻기·학원 늘리기·원서 대신 정하기·되짚기)
- ◆ **부모만 할 수 있는 자리 다섯** — 자격 서류·비용 판단·전화 받기·일정·버틸 자리
- ◆ 시기별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· 「최근 일주일에 결과를 몇 번 물었는가」

01 · 먼저 사실부터

부모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
「제가 뭘 해 줘야 할까요.」

고3 부모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그런데 「해 줄 것」보다 「하지 않을 것」을 정하는 편이 이 시기에는 대개 도움이 됩니다. 불안은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, 그 대부분이 역효과이기 때문입니다.

먼저 **제도가 정해 놓은 것**부터 보시겠습니다. 이건 판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.

이런 것들은	누가 정하나
자기소개서를 대신 쓰는 것	금지 — 합격 취소 대상
생활기록부에 사교육 내용	기재 제한
면접에서 답하는 사람	학생
충원 전화에 답하는 시간	몇 분
수시 등록 뒤 정시 지원	불가

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. 입시의 중요한 자리는 대부분 학생이 직접 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.

그래서 부모의 몫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.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보시겠습니다.

출처: 각 대학 요강의 자기소개서 배제사항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,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. 아래 장들의 판단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

02 · 하지 말아야 할 것

자주 보는 다섯

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것들입니다. 통계가 아니라 저희 경험이니 그렇게 읽어 주십시오.

Q. 하나 — 다른 집 이야기를 옮기는 것

「누구는 어디 붙었대」는 정보처럼 들리지만 정보가 아닙니다. 그 학생의 성적도 서류도 지원 자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말은 학생에게 「너는 왜」로 들립니다 —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습니다. 비교는 정보를 주지 않고 힘만 뻗니다.

Q. 둘 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묻는 것

「될 것 같아?」는 학생이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. 모르기 때문이고, 모른다고 답하면 부모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실이 아닌 답을 하게 되고, 정작 필요한 상의가 안 됩니다. 대신 「지금 뭐 하고 있어?」를 물어보십시오 — 답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.

Q. 셋 — 학원을 늘려 불안을 다루는 것

불안할 때 가장 손쉬운 행동이라 자주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건 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일이지 학생의 성적을 다루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고3 2학기에는 이미 쌓인 학기가 많아 내신이 크게 안 바뀌고, 늘어난 수업은 혼자 하는 시간을 깎습니다. 늘리기 전에 「이걸 늘리면 무엇이 줄어드는가」를 물어보십시오.

Q. 넷 — 원서를 부모가 정하는 것

학생이 면접에서 답을 못 합니다 — 왜 그 학과인지 스스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학생이라, 납득하지 않은 자리는 3년 뒤에 다시 옵니다.

Q. 다섯 — 떨어진 날 원인을 되짚는 것

되짚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. 때가 나뉩니다. 발표 직후는 다음 할 일을 정해야 하는 며칠이라, 그 시간에 되짚으면 둘 다 못 합니다. 되짚기는 다음 자리가 정해진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

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통계가 아닙니다.

03 · 대신 하실 수 있는 것

부모만 할 수 있는 자리

반대로 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꽤 실무적입니다.

무엇	왜 부모 몫인가	언제
자격 서류	지역인재·농어촌·사회통합 증빙은 가족 서류가 필요합니다	여름
비용 판단	3년치 비용은 학생이 정할 수 없습니다	지원 전
전화 받기	충원 통보는 보호자 번호로도 옵니다	12월
일정 관리	여섯 장의 날짜를 한 달력에 모읍니다	원서 전
버틸 자리	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	내내

맨 아랫줄이 가장 크고 가장 말하기 어렵습니다. 학생이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가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, 실패한 뒤에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. 이걸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.

말보다 행동이 전해집니다

「결과는 상관없어」라고 말하면서 결과에 표정이 바뀌면 학생은 표정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는 말로 만들 수 없습니다.

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결과가 나오기 전에 「어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할지」를 함께 정해 두는 것입니다. 다 떨어지면 정시로 이렇게 간다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, 그날 당황이 크게 줄어듭니다. 준비된 계획이 있는 실패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됩니다.

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시기별로 하실 일과 점검표

부모의 몫은 시기마다 다릅니다.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언제	부모가 할 것	하지 않을 것
여름	자격 서류 · 비용 계산	원서 자리를 대신 정하기
원서 기간	일정 달력 · 마감 시각	「될 것 같아?」 묻기
10~11월	고사장 이동 · 몸 챙기기	다른 집 이야기 옮기기
12월	전화 받기 · 다음 계획	발표 직후 되짚기

부모가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자격 증빙 서류를 **내가** 챙기고 있는가
- ☐ 3년치 **비용** 을 계산해 보았는가
- ☐ 여섯 장의 **일정** 을 한 달력에 모았는가
- ☐ 원서에 적은 **보호자 번호**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
- ☐ 여섯 장의 **순위** 를 학생과 함께 정했는가
- ☐ 학생이 「**여기면 다니겠다**」 고 말한 자리만 넣었는가
- ☐ 「다 안 되면 어떻게 할지」 를 **미리 이야기** 해 두었는가
- ☐ 최근 일주일에 **결과를 묻는 말** 을 몇 번 했는가

마지막 항목만 세어 보셔도 됩니다. 세 번을 넘으면 줄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— 묻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, 묻는 만큼 학생의 힘이 줄어듭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불안하실 때 결제하지 마십시오.** 이 시기에 파는 쪽은 **부모의 불안이 가장 확실한 시장**이라는 것을 압니다. 저희도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— 「**지금 안 하면 늦는다**」 는 말이 붙은 상품은 한 번 더 보십시오. 정말 늦는 일은 대개 **돈이 아니라 날짜**입니다. 자격 서류, 추천 신청, 원서 마감, 총원 전화. 그 **넷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.**

05 · 자주 묻는 것

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

Q.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

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.

앞에서 보신 대로 **자격 서류·비용·일정·전화**는 부모 몫입니다. 이 녀는 **학생이 못 하거나, 하면 공부 시간을 뺏기는 일**입니다. 여기에 힘을 쓰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

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**일상을 유지하는 것**입니다. 온 집이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면 **학생이 실패할 자리가 없어집니다**. 부모가 평소처럼 지내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는 여유가 됩니다.

「덜 하는 것」이 하는 일인 시기가 실제로 있습니다.

Q.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

흔한 일입니다. 대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— **말할 것이 정리가 안 됐거나, 말하면 걱정하실 것을 아는 것**입니다.

두 번째라면 묻는 방식을 바꾸시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**결과를 묻는 질문**은 답하기 어렵고, **사실을 묻는 질문**은 답하기 쉽습니다.

「될 것 같아?」 대신 「원서 마감일이 언제야?」, 「공부 잘돼?」 대신 「오늘 뭐 했어?」가 답하기 쉽습니다. **답하기 쉬운 질문이 쌓이면 어려운 이야기도 나옵니다**.

그래도 말이 없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**말하지 않는 것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**.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, 필요할 때 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부모의 몫은 **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지키는 것**, 그리고 **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자리를 두는 것**입니다.

이 자료에서 제도에 관한 내용은 공개 요강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합니다. 나머지는 **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**이며 통계가 아닙니다.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.